

# ‘16년 돌고돌아 원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공영개발하나

### 도시공사, 서진건설에 협상 결렬 통보...사업 추진 논의 중 투자 유치 성공 ‘부산 오시리아 단지’ 벤치마킹 대상 급부상

2005년 계획수립 후 16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영(公營)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 관광단지 개발 사업 중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번 주 내로 서진건설에 정문진행을 통보하는 등 정문절차

를 밟은 뒤 공모 지침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2019년 8월 서진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협상에 들어갔지만, 협약 이행 보증금 산출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해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서진건설측이 강력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적 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소송에 대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재공모 여부 등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는 일단 도시공사가 직접 공영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도시공사 단독으로 진행할 지,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할 지는 향후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개발방식 추진은 판매시설(상가)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도시공사가 전체를 시행할 수도 있고, 도시공사는 기반 공사만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호텔, 어뮤즈먼트(오락 시설), 킬러콘텐츠를 채우는 일은 민간 등에서 맡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은 (서진건설과 관련해) 법령이 정

한 절차에 따르면 그 절차가 끝나면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만 “공영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성을 고려해 상가 면적을 넓히는 것은 편법”이라며 “기존 민간 사업자 공모기준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상가 면적 확대 의견을 일축했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해 공영개발을 거론하면서, 부산시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2005년 부산시와 광주시는 각각 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16년 이 흐른 현재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부산시만 사업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에 휴양 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휴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투자 방식을 선택했으나 돈 되는 골프장

만 들어섰을 뿐 정작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반면 부산시는 가장군 일대에 관광단지 개발을 선언하고, 부산도시공사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끝에 현재 테마파크와 아쿠아월드 등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시설 34개 중 32개에 대한 투자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업은 총 사업비만 총 6조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투자 유치된 민간 자본만 총 1조 1649억원에 이른다. 아쿠아월드 등 오시리아 전체 관광시설이 문을 여는 2024년께면 연간 방문객만 20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산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홍범도장군 특별전 관람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오후 월곡고려인문화관에서 홍범도장군 유해 국내 봉환을 계기로 열린 홍범도장군 특별전시회에 참석, 관람하고 있다.

## “시 산하기관장 인사 혁신·정상화할 것” 이용섭 광주시장 “성과 창출엔 연임...임원 내부 발탁 활성화”

이용섭 광주시장은 30일 “산하기관장 인사를 혁신하고,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취임 3년이 지나고 대부분 기관장 임기가 3년이다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 15개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성과를 많이 창출한 기관장은 연임하고 그렇지 못하면 바꾸는 게 인사권을 위임한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열심히 일한 기관장을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기관장들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상임 이사, 처장, 본부장 등 산하기관 임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도 “거의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내부 유능한 직원을 발탁해 업무 일관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준다”면서 “특히 유능한 내부 직원이 임원을 거쳐 대표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산하기관과 시장간 유기적 협력 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시정 출신 공직자의 산하기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혁신사례 공유 ‘혁신성장 이어달리기’ 전남서 개최

### 도 ‘국산 김치 사용 표시제’ 등 우수 사례 전국에 소개

전남도가 30일 일과 삶이 균형잡힌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3회 혁신성장 이어달리기’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기관 간 혁신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범정부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이 릴레이로 개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전남도가 이날 세 번째로 주관했다.

이날 이어달리기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하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제로 여러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MZ세대 공무원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와 80년대 초·20년대 초 출생한 세대(Z)를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토론 참여 패널을 최소화하고, 사전 공지를 통해 전남도내 시군까지 온나라 영상의 참여를 유도해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전남도는 혁신 우수사례로 ▲도민 생활불편을 찾아가 해소하는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 ▲음식점의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위해 전국 최초 장안한 ‘국산 김치 사용 표시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급식 농산물을 집으로 배달해 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소개해 전국에 전파했다.

이어 전남도의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두산중공업, 전남개발공사, 특허청 패널이 각자가 속한 기관의 일하는 방식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MZ세대 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관행을 타파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MZ세대뿐만 아니라 내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고, 토론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적용해 모두가 행복한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신혼·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 내일부터 대상자 모집

전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남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 도입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출 취급기관을 늘리고, 다자녀가정 신청 자격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로 구입주택 6억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자녀 중 1명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다.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월 최대 15만원까지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대상자는 도와 시·군 누리집 공고문(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택 구입에 대한 큰 부담을 덜어 행복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은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